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응하는 광주 자원봉사의 전환 방향

윤희철 / 광주자원봉사연구소 연구위원

제1장 왜 지금 '자원봉사의 전환'인가

▌ 국제 자원봉사에서 2026년의 의미

❍ 2026년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시민참여 활동이 아닌, 정책·제도와 연결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 국제적 전환점에 해당함.

- 국제사회는 자원봉사를 개인의 선의나 일회적 참여에 머무르는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실행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 UNV)는 자원봉사의 역할을 시민참여 영역을 넘어 공공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자원봉사는 이제 '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과 사회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실행 인프라로 다뤄지고 있음.

❍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nternational Volunteer Year 2026, IVY 2026)는 '기념'이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장치'로 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의 기념일 중심 접근이 감사·포상·홍보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사회적 의제 설정과 집단적 행동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선언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천 사례 공유–성과 축적–후속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조되고 있음.
- 이는 자원봉사를 '한 해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의 촉매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함.

❍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는 자원봉사의 '인정–측정–정책화'를 전면에 내세운 국제적 실천 프레임임.

-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 단순 참여 인원이나 시간 집계가 아니라, 자원봉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와 공공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측정(measurement) 체계 구축을 요구함.
- 나아가 자원봉사를 정책 설계, 예산 편성,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정책 통합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이미 선언을 넘어 실제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2월 5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2025 전국자원봉사대회 및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비전 선포식'이 개최됨.
- 이 행사는 2026년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자원봉사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선언과 출발점에 해당함.
- 동시에,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한국 비전 수립을 위한 전국 단위 인식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이 병행되고 있음.
  - 유엔(UN) 본부 차원에서도 IVY 2026 글로벌 런칭 행사가 추진되며, 국제 공통 의제와 국가·도시 단위 실천을 연결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국제 흐름과 연동된 다양한 국내·외 연계 활동을 준비·추진 중임.

○ 따라서 2026년은 '행사–보고서–정책'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결합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을 갖춘 해임.

- 단발성 기념행사로 소모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진단과 기준 정립, 국제 행사와 선언, 사후 정책 실험과 제도화로 이어지는 연속적 설계가 가능함.
- 국제 기준을 지역 맥락에 맞게 번역하고, 도시 단위에서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에 해당함.
- 2026년은 자원봉사를 '확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기능함.

▌한국·도시 자원봉사의 구조적 한계

○ 한국의 자원봉사는 제도적 안정성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으나, 참여 구조와 성과 체계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전국 단위 등록 시스템과 공공 중심 운영을 통해 양적 기반은 일정 수준 확보됨.
- 그러나 사회 구조 변화, 시민 참여 방식의 다변화, 정책 환경의 고도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동원형·행사형 중심 구조가 자원봉사 운영의 기본 틀로 유지되고 있음.

- 특정 시기, 특정 장소, 특정 과제에 시민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이 주요 운영 방식으로 작동함.
- 대규모 행사 지원, 행정 보조, 단기 캠페인 중심 활동이 반복적으로 설계·운영됨.
- 이로 인해 자원봉사는 일상 속 실천보다는 '필요할 때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형성됨.
- 개인의 삶의 문제, 지역의 구조적 과제와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참여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임.

○ 공급자(기관) 중심 설계로 시민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음.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설계·운영이 행정기관이나 센터, 단체 주도로 이루어짐.

- 시민은 이미 설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며, 문제 설정 단계에 개입하기 어려움.
- 참여 시간, 활동 방식, 역할 강도 등에 대한 자율적 선택이 제한됨.
- 이로 인해 시민은 자원봉사의 '주체'라기보다 '배치 대상'에 가까운 경험을 반복하게 됨.

○ 자원봉사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측정 언어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함.

- 현재 성과 관리는 참여 인원, 누적 봉사시간, 프로그램 건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지표는 관리 효율성은 높으나, 자원봉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와 공공적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원봉사가 지역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시민의 인식과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책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임.
- 그 결과,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예산·도시 전략과의 연결성이 약하게 유지됨.

○ 지속 참여·재참여를 설명하지 못하는 시스템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현행 시스템은 '한 번의 참여'와 '누적 시간'을 기록하는 데에는 효과적임.
- 반면, 왜 시민이 다시 참여하는지, 어떤 경험이 지속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분석 기능은 취약함.
- 참여 이후의 만족도, 학습, 관계 형성, 역할 변화가 체계적으로 기록·반영되지 못함.
- 이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활동의 깊이와 관계 기반 축적에 한계가 발생함.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

○ 본 보고서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계기로, 광주 자원봉사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원봉사를 단순한 참여 활동이나 행사 지원 수단이 아닌,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적 자원으로 재정의함.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자원봉사의 역할 변화, 성과 인식 방식, 정책 연계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광주의 행정·시민 참여 구조에 맞게 해석·번역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광주 자원봉사가 지역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설명 가능한 논리와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본 보고서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행사'가 아닌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로 설정함.

- 단발성 행사나 선언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전 진단–행사 실행–사후 정책 실험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구조를 전제함.
-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일회성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제도·예산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자원봉사 전환을 운영 개선이나 프로그램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재설계의 문제로 접근함.

- 동원형·행사형 중심으로 고착된 기존 참여 구조의 한계를 분석함.
- 시민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참여 경로와 선택 구조를 핵심 검토 대상으로 설정함.
- 참여 인원과 봉사시간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 인식 틀을 모색함.

❍ 본 보고서는 자원봉사가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참여 구조를 주요 범위로 함.

- 특정 시기와 장소에 집중되는 참여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반경과 시간 구조 안에서 가능한 참여 모델을 다룸.
- 개인의 관심사, 삶의 문제, 지역의 일상적 과제가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상적 시민 참여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탐색함.

❍ 본 보고서는 광주 자원봉사가 국제 기준을 단순히 따르는 사례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전환 모델을 실험·제시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을 검토함.

-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의 행정 구조와 시민 참여 환경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환 기준을 선별·고정함.
- 이를 지역 단위에서 실증하고 축적함으로써, 자원봉사 전환에 대한 하나의 도시 사례를 제안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함.

제2장 글로벌 메가트렌드: 자원봉사는 무엇으로 재정의되고 있는가

1. 자원봉사 전환을 위한 국제 담론과 판단 기준

○ 이 장에서는 '광주 진단'을 하기에 앞서, 판단의 기준축을 국제 담론에서 먼저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본 보고서는 광주 자원봉사의 현황을 단순 서술하거나 사례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한 이후 진단을 수행하는 구조를 채택함.
- 이를 위해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정의, 역할, 성과, 제도적 연결 방식에 대한 국제적 공통 언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광주 진단의 기준점으로 삼고자 함.
- 광주 자원봉사를 평가·전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본 장의 핵심 질문임.
  - 자원봉사를 단순한 시민 참여 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 운영과 정책 실행을 떠받치는 사회적 인프라로 볼 것인지.
  - 참여 인원과 봉사시간 중심의 성과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변화와 정책 기여를 설명하는 성과 개념으로 확장할 것인지.
  - 행정 보조 인력의 역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정책 설계와 실행에 참여하는 제도적 파트너로 재정의할 것인지.
- 이러한 기준 설정 없이는 광주 자원봉사에 대한 진단이 평가자의 관점이나 기존 관행에 종속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본 장은 국제 기준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나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음.
  - 국제 보고서와 선언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후 장(광주 자원봉사 현황 진단, 전환 전략 수립, 실행 체계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프레임으로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장에서 제시되는 기준은 이후 모든 장에서 "광주는 이 기준에 비추어 어디에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사용됨.

○ 최근 국제 담론에서 자원봉사는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일관되게 재정의되고 있음.

- 이는 특정 국가나 단일 기구의 해석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다수 국가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임.
- 특히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세계 자원봉사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22)는 이러한 재정의 방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준 문서로 평가됨.
- 첫째, 자원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음.

〈그림 2-1〉 자원봉사 전환을 위한 국제 담론과 판단 기준

  - 자원봉사는 개별 선행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과 신뢰, 접근성을 만들어내는 기반 구조로 이해됨.
  - 포용은 취약계층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참여와 자원이 재배치되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자원봉사는 정부–시민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
  -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문제 정의, 실행,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적 통로로 기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셋째, 자원봉사는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지역 회복력의 핵심 단위로 재정의되고 있음.
  - 중앙정부나 외부 자원보다 빠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주체로 지역 기반 자원봉사망이 주목받고 있음.
  - 이는 자원봉사를 일상 운영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감당하는 상시적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의미함.

- 넷째, 자원봉사는 측정과 가치화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선의와 참여를 존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예산·성과관리 체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
  - 측정은 통제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공공정책에 연결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인식됨.
- 다섯째, 공식·비공식 자원봉사의 동시 인정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함.
  - 등록 기반 제도권 자원봉사뿐 아니라, 생활 속 돌봄, 상호부조, 관계 기반 기여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임.
  - 이는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여의 총량을 가시화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그림 2-2〉 글로벌 메가트랜드에 따른 자원봉사 재정의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포용

▌ 자원봉사는 사회적 인프라

○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세계 자원봉사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SWVR)는 자원봉사를 '사회적 인프라'로 위치시키는 것을 핵심 논지로 제시함.

- 2022년 보고서는 자원봉사를 공공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보조적 활동으로 보지 않음.
- 오히려 자원봉사가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권력관계, 의사결정 구조, 파트너십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참여 메커니즘임을 강조함.
- 이는 자원봉사를 '무엇을 얼마나 도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관점임.
-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자원봉사는 단발성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시민 간·시민과 제도 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함.
  - 반복적 참여와 관계 축적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냄.
  -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집단에게 참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포용성을 확장함.
  - 시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참여 역량과 공공 감수성을 축적하게 함.
- 이러한 요소들은 도로·시설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가 작동하는 기반 조건으로 기능함.

○ 이 관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SDGs는 특정 부문이나 단일 정책의 성과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 체계가 아님.
- 목표 간 상호 연계가 강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선언만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움.
- 따라서 SDGs 이행은 지역 단위에서 시민, 기관, 공공이 협력하는 실행 구조를 전제로 함.
- 국제사회에서는 자원봉사를 SDGs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을 메우는 핵심 참여 메커니즘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 SDGs는 목표는 명확하나, 이를 일상적 실천과 지역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함.
  - 자원봉사는 행정이 직접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목표를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함.
  - 특히 빈곤, 교육, 보건, 성평등, 기후 대응 등 다수의 목표에서 자원봉사는 교차적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국제 기준은 자원봉사를 '사업 영역'이 아니라 '지역 운영의 기반 구조'로 바라볼 것을 요구함.

- 자원봉사가 사회적 인프라라면, 그 성과는 단순한 활동 실적이 아니라 포용성의 확대, 관계망의 밀도, 참여 경로의 다양성으로 평가되어야 함.
- 또한 자원봉사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 관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SDGs를 실행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

▌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격차를 줄이는 구조

❍ 국제 담론에서 '포용'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음.

- 포용은 특정 집단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있으며, 누가 의사결정에 포함되는가를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는 포용을 정책 성과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정책 설계 방식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포용의 핵심 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양적 확대 여부가 아님.
  - 단기적 지원 횟수나 참여 인원 증가만으로는 구조적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핵심 질문은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가 완화되고 있는지, 참여·자원·의사결정의 배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있음.
  - 이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지, 아니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국제적 요구도 변화하고 있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는 최소한의 대응으로 간주됨.
  - 자원봉사는 접근성 개선(정보·공간·시간 장벽 완화), 권리 인식 확산(자기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이해), 시민 역량 강화(참여 경험과 학습), 공공서비스 개선(현장 경험의 정책 환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방향은 유엔 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2022년 보고서에서 포용과 참여를 연결하는 핵심 논지로 제시됨.

❍ 이 국제 기준을 광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됨.

- 광주의 자원봉사가 '지원 활동'의 총량을 늘리는 데 머물렀는지, 아니면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해야 함.
  -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새로운 집단이 참여 경로에 편입되고 있는지, 단기 지원 중심 활동이 아닌, 관계 형성과 역할 전환이 가능한 참여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함.
- 광주 자원봉사 참여 구조에서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양상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함.
  - 시간 제약, 공간 접근성, 활동 방식, 역할 설계 등에서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지 검토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유연한 참여 시간, 생활권 중심 공간 배치, 다양한 역할 유형, 디지털 기반 참여 경로가 실제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향후 광주 자원봉사 전환 전략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됨.

3. 정부-시민 파트너십

▌보조 인력에서 공동 설계자로

○ 국제 기준에서 자원봉사는 행정의 '보조 인력'이 아니라 정책 실행을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재정의되고 있음.

- 기존의 자원봉사는 행정이 설정한 과제를 시민이 수행하는 방식, 즉 인력 보완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최근 국제 담론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자원봉사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시민 참여를 소극적·수동적 역할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세계 자원봉사 현황 보고서(2022)는 자원봉사자-국가(정부) 관계를 단순 동원 관계로 보지 않음.
  - 이 보고서는 자원봉사 파트너십이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권력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명확히 제시함.
  -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나 실행자가 아니라, 정책 과정의 공동 참여자로 위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됨.
-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행정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한정될 수 없음.
  - 자원봉사는 문제 정의 단계에서 현장의 경험과 시민의 관점을 제공.
  - 해결 설계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구상.
  - 실행 단계에서 정책과 현장을 연결.
  - 피드백 단계에서 성과와 한계를 다시 행정에 환류하는 역할을 수행.
- 자원봉사는 정책 전 주기에 걸쳐 시민 참여가 작동하도록 하는 통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임.

○ 이러한 변화는 자원봉사 운영 방식뿐 아니라, 행정의 운영 방식 전반과 직결됨.

- 성과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모집했는가"에서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
- 참여 인원의 규모보다, 참여의 질과 위치, 즉 정책 과정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성과로 부상함.
- 이로 인해 자원봉사 플랫폼의 역할 또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플랫폼은 더 이상 프로그램을 공급·배치하는 관리기관에 머물 수 없음.
  - 시민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수렴하고, 행정과 연결하여 공동 설계와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운영하는 장치로 전환되어야 함.
  - 이는 자원봉사 플랫폼이 정책 실험의 장이자, 시민-행정 간 신뢰를 축적하는 중간 인프라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함.

▌ 자원봉사는 거버넌스의 일부

❍ 자원봉사가 거버넌스의 일부라는 의미는 단순히 몇몇 위원회에 자원봉사자 또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음.

- 거버넌스는 특정 기구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전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의미함.
- 따라서 자원봉사의 거버넌스화는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참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위치와 방식에 관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함.
-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핵심 과정으로 구성됨.
  - 정보 접근: 정책 관련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고 공유되는가.
  - 의제 설정: 어떤 문제가 공적 의제로 선택되고 우선순위가 부여되는가.
  - 자원 배분: 예산, 인력, 제도적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가.
  - 성과 검증: 실행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이후 정책에 반영되는가.
- 자원봉사가 거버넌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중 최소 일부에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결합되어야 함.

❍ 자원봉사가 거버넌스의 일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현장 실행'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

- 기존 자원봉사는 주로 사업이 이미 결정된 이후, 실행 단계에서 역할을 부여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 이 경우 시민 참여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행정 보조 역할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 국제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 요소의 제도화를 최소 조건으로 제시함.
  - 지역 의제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에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참여함.
    ▷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 제도 밖의 수요, 주민의 생활상 어려움이 정책 의제로 전환되는 통로를 확보함.
    ▷ 이는 자원봉사를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위치시킴.
  - 사업 설계 단계에서 자원봉사자의 경험과 현장 지식이 반영됨.
    ▷ 자원봉사자는 정책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실행 경험을 축적하는 주체임.
    ▷ 이러한 경험이 사업 설계에 반영될 경우,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이 높아짐.
  - 실행 결과가 정책·서비스 개선으로 환류되는 절차가 존재함.
    ▷ 활동 결과가 보고서나 실적으로만 남지 않고, 제도 개선이나 서비스 조정으로 이어지는 공식 경로를 확보함.
    ▷ 이는 참여 경험이 일회성으로 소진되지 않고, 다음 정책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의미함.

❍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가 강조하는 방향은 자원봉사의 거버넌스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

-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의 핵심 메시지로 "모든 형태의 자원봉사를 인정하고, 기여를 가시화하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 이는 자원봉사를 제도 밖의 선의로 남겨두지 않고, 공공 의사결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

언으로 해석됨.

- 결국 자원봉사의 인정과 가시화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시민의 기여가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귀결됨.

4. 기후·재난 회복력

▌지역 기반 자원봉사망이 가장 빠른 대응 단위

○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상시화 국면에서 자원봉사는 '행사 지원'이 아닌 '회복력(resilience)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음.

-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폭우·폭염·가뭄·감염병·사회적 위기 등이 중첩되는 복합적 양상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재난 대응은 일회적 복구가 아니라, 사전 준비–즉각 대응–장기 회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필요로 함.
- 이러한 연속 대응 구조에서 자원봉사는 일시적 인력 동원이 아닌, 지역 사회의 대응 역량을 떠받치는 기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재난 대응은 초기 대응과 장기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과제를 동시에 포함함.
  - 초기 대응(골든타임)은 인명 보호, 정보 전달, 긴급 지원 등 신속성과 접근성이 핵심임.
  - 장기 회복은 돌봄, 생활 재건, 심리적 회복, 공동체 복원 등 지속성과 관계성이 요구됨.
- 이 두 단계를 분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임.
  - 지역에 상시적으로 존재하며, 주민과의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자원봉사망은 초기 대응 이후에도 지속적 개입이 가능함.
- 외부 자원은 재난 초기 집중 투입에는 강점을 가짐.
  - 대규모 장비, 전문 인력, 긴급 예산 투입 등에서 효과적임.
- 그러나 외부 자원은 일정 기간 이후 철수할 수밖에 없으며, 일상 복귀와 장기 돌봄 단계에서는 한계를 가짐.
  - 이 시점부터는 지역 내 신뢰 관계와 생활 맥락을 이해하는 주체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따라서 국제 담론에서는 재난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역 자원봉사망의 존재와 작동 여부를 중시하고 있음.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는 자원봉사를 미래 도전 대응을 위한 핵심 변환 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는 기후위기, 감염병, 도시 취약성 증가 등 미래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차원의 자원봉사 정책과 관리 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는 개별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 준비·교육·조정·보호 체계를 갖춘 자원봉사 시스템을 전제로 함.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시하는 국제 인도주의 기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는 재난·보건·기후 리스크 대응에서 부수적 역할이 아님.
  - 자원봉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핵심 역량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평상시 교육, 역할 정의, 안전·보호 기준, 지휘·조정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함.
- 이러한 기준은 자원봉사를 '위기 시 불러 모으는 인력'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준비된 지역 대응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 이 국제 기준은 지역 단위 자원봉사 정책에도 명확한 함의를 가짐.

- 재난 발생 시 임시 동원 체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회복력 있는 대응이 어려움.
- 평상시 자원봉사 운영이 곧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시 네트워크화·역할 분화·연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자원봉사 정책을 복지·행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안전·기후 적응·재난 관리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함.

▌국제 인도주의 기준의 요구

○ 국제 인도주의 기준에서 재난 대응의 핵심은 '마음'이나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이를 구현하는 절차에 있음.

- 재난 현장은 긴급성과 혼란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위험과 혼선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재난 대응에서 감정적 헌신보다 원칙 기반의 조직적 대응을 우선하는 기준을 확립해 옴.
-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가 제시하는 국제 인도주의 기준은 다음의 핵심 원칙을 강조함.
  - 중립성: 정치·종교·이념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함.
  - 독립성: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함.
  - 차별금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지원함.
  - 책임성: 자원봉사자와 조직이 수행한 행동에 대해 명확한 책임 구조를 가짐.

○ 이 원칙들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운영 절차와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함.

- 이러한 기준은 자원봉사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함.
- 자원봉사 전환은 단순히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핵심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안전·윤리·역할·교육·조정 체계가 사전에 갖춰진 대응망을 구축하는 데 있음.
-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 속에서 참여했는가'가 중요함.

○ 이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광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됨.

- 평상시 자원봉사 운영 체계가 재난 발생 시 단순히 인력을 급히 모으는 방식으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재난 대응이 가능한 상시 네트워크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 상시 네트워크란 연락 체계, 사전 교육, 역할별 배치, 현장 조정, 참여자 보호,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 구조를 의미함.
  - 이는 재난 발생 이후 즉흥적으로 구성되는 체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준비 수준을 요구함.
- 자원봉사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 기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
  -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보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자원봉사 관리 기준, 안전·보호 가이드, 역할별 행동 지침, 사고 발생 시 지원 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 이러한 기준의 유무는 자원봉사가 위기 상황에서 신뢰 가능한 대응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됨.

○ 국제 인도주의 기준은 자원봉사를 '선의의 집합'이 아니라 '준비된 공공 역량'으로 다룰 것을 요구함.

- 이는 자원봉사 정책이 평상시 복지·행사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재난·안전·기후 대응을 포함한 도시 회복력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재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함.

5. 측정과 가치화

▌단순한 선의에서 정책·예산·성과관리로의 전환

○ 국제 담론에서 '측정'은 자원봉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화의 전제조건으로 다뤄지고 있음.

- 자원봉사는 오랫동안 자발성·선의·윤리의 영역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정책과 예산 논의에서 주변부에 위치하는 한계를 가짐.
-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정책 논의에 포함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자원봉사가 공공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선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책 우선순위나 예산 배분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 자원봉사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 변화가 왜 공공의 개입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 가능한 언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은 측정을 자원봉사의 정책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제시함.
- 측정의 목적은 자원봉사를 숫자로 환원하거나 경쟁시키는 데 있지 않음.
  - 국제 기준에서 강조되는 측정은 성과 서열화나 단순 비교를 위한 도구가 아님.

- 핵심은 자원봉사의 기여가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설명력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즉, 측정은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번역 과정으로 이해됨.

○ 이러한 인식 변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측정 프레임은 '시간 합계' 중심에서 점차 이동하고 있음.

- 기존 자원봉사 평가는 주로 참여 인원, 활동 횟수, 누적 봉사시간 등 '투입 지표'에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자원봉사가 사회에 남긴 변화나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측정의 초점은 다음과 같은 성과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 참여 지속성
    ▷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재참여율, 관계 유지 여부, 참여 경로의 안정성이 핵심 지표로 부상함.
    ▷ 이는 자원봉사가 일시적 동원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으로 기능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사회적 성과
    ▷ 취약성 완화, 접근성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사회적 변화가 측정 대상이 됨.
    ▷ 단순 지원 횟수보다, 지원 이후 대상자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짐.
  - 거버넌스 성과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발굴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함.
    ▷ 이는 자원봉사가 실행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회복력 성과
    ▷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 지역 대응망의 유지 여부, 반복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축적 여부가 포함됨.
    ▷ 이는 자원봉사가 평상시 활동을 넘어, 위기 대응 인프라로 기능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임.

○ 이러한 측정과 가치화의 전환은 자원봉사 정책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짐.

- 자원봉사는 더 이상 '얼마나 했는가'를 증명하는 영역이 아니라,
- 어떤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가 왜 공공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는 이후 광주 자원봉사 전환 전략에서 측정 체계를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닌, 정책 연결 장치로 설계해야 함을 시사함.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위성 계정 접근

○ 국제사회에서는 자원봉사를 정책과 예산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포착 가능한 노동'으로 정의하려는 노력이 축적되어 옴.

- 자원봉사는 오랫동안 공식 통계에서 배제되거나, 부차적 참고 정보로만 다뤄져 왔음.
- 이로 인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기여가 과소평가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누락되는 문

제가 반복되어 왔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자원봉사를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를 제시해 옴.
  -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 활동 측정 매뉴얼(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2011)는 자원봉사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 대상으로 다루기 위한 정의와 조사 설계 원칙을 제시함.
  - 여기서 자원봉사는 '무급 노동'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조직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됨.
  - 특히 공식 자원봉사(조직·기관 기반)와 비공식 자원봉사(개인·관계 기반)를 구분하되, 둘 모두를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이 핵심 특징임.
- 또한 UN 통계체계에서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논의를 통해 자원봉사 노동의 가시화를 중요한 진전으로 다루고 있음.
  - 위성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에 직접 포함되기 어려운 활동을 보조적으로 측정·제시하는 통계 장치임.
  - 자원봉사 노동을 위성계정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시장 거래는 아니지만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짐.
  - 이러한 논의는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의 통계·위성계정 접근은 광주 자원봉사 정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함.

- 자원봉사를 "봉사시간 총량"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지역 정책 성과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움.
  - 시간 합계는 투입 규모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어떤 활동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함.
  - 따라서 자원봉사를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의, 범위,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측정 체계에 포함되어야 함.
  - 공식·비공식 자원봉사의 구분과 동시 포착: 제도권 봉사뿐 아니라 생활 속 돌봄과 관계 기반 기여를 포함함.
  - 분야별 특성: 복지, 환경, 안전, 돌봄, 교육 등 정책 영역별 기여를 구분함.
  - 빈도와 지속성: 일회성 참여인지, 반복·장기 참여인지에 따라 성격을 구분함.
- 이러한 구조화된 측정 없이는 자원봉사의 정책적 위치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움.

○ 측정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자원봉사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님.

- 오히려 이는 자원봉사가 예산·조직·성과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을 확보하는 과정임.
- 자원봉사의 기여가 통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때,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예산 투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와 연결될 수 있음.
- ILO의 접근은 자원봉사를 '보이지 않는 선의'에서 '정책과 연계하는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음.

6. 공식·비공식 자원봉사의 동시 인정

▌ 제도 밖의 기여까지 포함

❍ 최근 국제 메시지는 자원봉사를 제도권에 등록된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 자원봉사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 기존 국제 논의에서 자원봉사는 주로 조직·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공식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음.
- 그러나 사회적 위기와 기후·재난의 상시화 속에서,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상호부조·관계 기반 기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 담론은 자원봉사의 범위를 형식이 아니라 기여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음.
-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가 제시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VY)의 메시지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드러냄.
  -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는 자원봉사의 형태를 공식/비공식, 대면/디지털, 지역/초국경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함.
  - 상호부조, 생활 돌봄, 기술·지식 나눔, 온라인 기반 참여 등 일상 속 기여를 자원봉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함.
  - 이는 자원봉사를 특정 제도에 '등록된 활동'이 아니라, 사회 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모든 자발적 행동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관점임.

❍ 이 국제 기준을 광주 진단의 언어로 번역할 경우, 제도권 자원봉사만으로는 도시의 실제 '기여 총량'을 설명하기 어려움.

- 광주의 일상 속에는 공식 통계나 등록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기여가 상시적으로 존재함.
- 생활 속 돌봄, 이웃 간 상호부조, 지역 커뮤니티의 자발적 활동은 평상시에는 조용히 작동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대응 자원으로 기능함.
-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활동은 기존 자원봉사 관리·통계 체계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차원의 기여 구조를 평가할 때, 실제보다 축소된 그림만 제시되는 한계가 발생함.
  - 공식 자원봉사 실적은 관리되고 있으나, 비공식 기여는 제도 밖에 머물러 정책 논의에서 배제됨.
  - 그 결과, 도시가 보유한 사회적 회복력과 관계 자산이 정책적으로 과소평가될 위험이 존재함.

❍ 따라서 광주 자원봉사 전환 프레임은 '등록 기반 자원봉사'의 개선을 넘어서는 접근을 필요로 함.

- 전환의 핵심은 공식 자원봉사 제도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음.
- 지역 차원에서 공식 자원봉사와 비공식 기여를 함께 인정·지원·연결하는 기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 제도 밖 기여를 배제하지 않고,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시화함.

- 공식 자원봉사 플랫폼이 비공식 활동과 단절되지 않고, 느슨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함.
- 위기 대응, 돌봄, 공동체 회복 등 영역에서 비공식 기여가 공식 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함.

○ 이러한 동시 인정 전략은 광주 자원봉사를 '관리 대상'이 아닌 '도시의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마지막 핵심 조건이 됨.

- 자원봉사의 범위를 넓게 설정할수록, 광주가 보유한 실제 참여 역량과 회복력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며, 이는 이후 전략 장에서 제시될 광주형 자원봉사 전환 모델의 현실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동함.

구분	핵심 개념	정책적 의미
SDGs와 포용	자원봉사는 사회적 인프라	단순 서비스 보완이 아닌, 연결망·신뢰·참여 역량을 구축하는 도시 기반으로 인식 필요
포용의 재해석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격차 축소 구조	활동 총량이 아니라 접근성·참여경로·관계 구조 변화 여부를 진단 기준으로 전환
정부–시민 관계	보조 인력 → 공동 설계자	자원봉사를 정책 전 주기(문제 정의–설계–실행–환류)에 포함시키는 구조 필요
거버넌스	자원봉사는 거버넌스의 일부	위원회 참여 여부가 아니라, 의제 설정·자원 배분·성과 검증에 참여하는 구조 여부가 핵심
기후·재난 대응	행사 지원 → 회복력 인프라	지역 기반 자원봉사망을 상시 대응 네트워크로 설계해야 함
국제 인도주의 기준	선의 → 원칙·절차 기반 대응	참여 확대보다 안전·윤리·역할·교육·보호 체계 구축이 우선
측정 인식 전환	통제 → 정책화의 전제조건	자원봉사를 정책·예산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한 설명 언어 확보 필요
측정 프레임 변화	시간 합계 → 성과 중심	지속성·사회적 성과·거버넌스 성과·회복력 성과로 지표 전환
통계 접근	비가시 노동 → 통계적 포착	정의·범위·특성을 갖춘 측정 체계 구축 시 정책·예산 연결 가능
인정 범위 확대	공식 + 비공식 자원봉사 동시 인정	등록 봉사 중심에서 지역 전체 기여 생태계(공식+비공식)로 전환 필요

[표 2-1]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자원봉사 재정의

UN Volunteers,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IFRC) 인도주의·자원봉사 기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2011);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통계체계; International Volunteer Year 2026(IVY 2026) 및 국제자원봉사의 날(IVD) 관련 국제 논의 종합.

제3장 광주 자원봉사 운영 구조 및 현황

▌ 제도적·조직적 구조 현황

○ 광주 자원봉사는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로 구성된 공공 기반 중간지원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제도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정책 기획과 현장 실행이 분리·연결된 형태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광역 단위 자원봉사 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광주 전체 자원봉사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함.
- 연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 단위 기획사업을 운영함.
- 환경, 돌봄, 안전, 재난 대응 등 광역 캠페인을 기획·총괄함.
- 자원봉사 관리자·코디네이터·리더 대상 교육 체계를 운영함.
-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통해 실적 관리 및 통계를 취합함.
- 중앙부처, 공공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함.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생활권 기반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운영하는 현장 실행 주체로 작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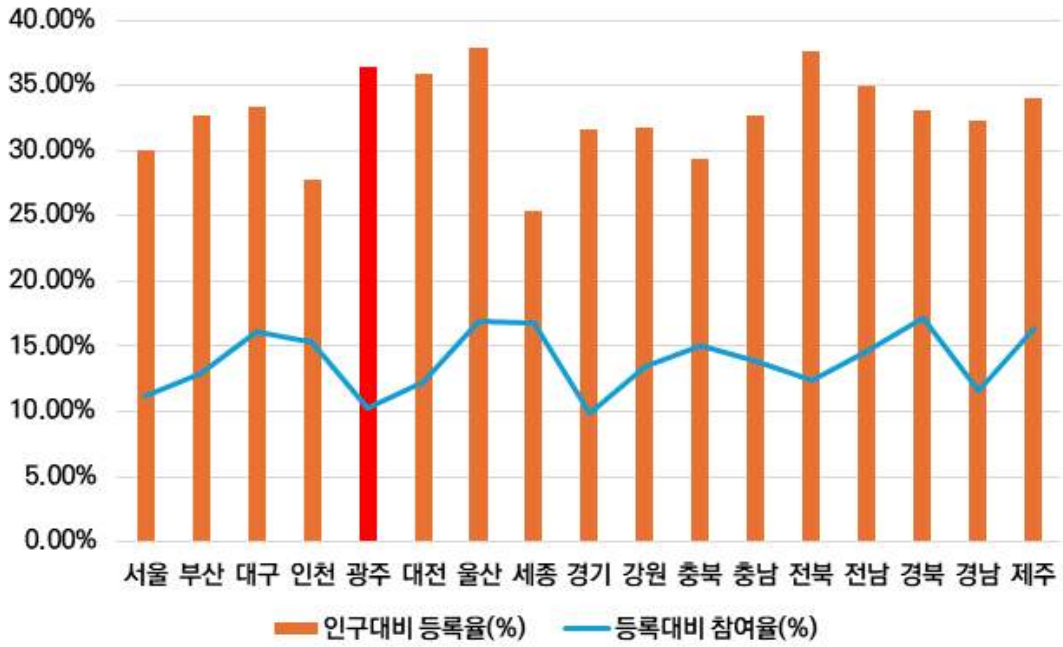
-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함.
- 개인·단체·학교·기업 연계 봉사활동을 조정·운영함.
-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활동 관리, 실적 입력을 수행함.
- 지역 내 복지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조정함.

○ 이러한 구조는 자원봉사를 공공정책과 연계 가능한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

- 행정과 시민사회 사이의 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자원봉사 활동을 개별 참여를 넘어 공공사업 수행 체계 안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함.

구 분	설치 년월일	운영형태	상근인원	자원봉사 참여연인원	비고
시	05.02.28	법 인	11		
동 구	19.07.17	법 인	8	43,567	
서 구	97.08.01	법 인	9	101,826	
남 구	00.08.07	법 인	10	95,519	
북 구	97.11.25	법 인	10	139,455	
광산구	02.03.02	법 인	9	132,773	
계			57	513,140	

[표 3-1] 광주광역시 시구 센터 현황(2025년 11월 30일 기준)



〈그림 3-3〉 전국 자원봉사 등록율과 참여율

구분	핵심 내용
운영 체계	광역–기초 자원봉사센터로 구성된 공공 기반 중간지원체계를 통해 운영됨
제도적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운영 구조
조직 구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이원적 구조
운영 방식	정책 기획(광역)과 현장 실행(기초)이 분리·연결된 구조
광역센터 역할	비전·중점과제 설정, 연간 사업 방향 제시, 광역 기획사업 운영, 캠페인 총괄, 교육 운영, 1365 연계·통계 관리, 대외 협력
기초센터 역할	생활권 기반 프로그램 기획·운영, 참여자 모집·관리, 단체·학교·기업 연계, 지역 협력 조정
구조적 기능	자원봉사를 공공정책과 연계하고, 행정–시민사회 간 중개 기능 수행

[표 3-2] 광주 자원봉사의 제도적·조직적 구조 현황

▌사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 광주 자원봉사 사업은 공익성이 비교적 명확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 돌봄, 안전, 지역행사, 재난 대응 보조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가 주요 대상임.
- 행정·공공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한 영역 위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음.

○ 최근에는 환경·기후 분야 자원봉사 활동이 광주 자원봉사 사업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가 대표적인 광역 기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천, 공원, 생활권 중심의 환경정화 활동이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분리배출,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 병행되고 있음.
- 플로깅 등 생활 실천형 프로그램이 캠페인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돌봄·나눔 분야는 지역 복지 체계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주다움 돌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봉사가 운영되고 있음.
-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생활 지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연계 봉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반복 참여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영역임.

○ 안전·생활 분야 자원봉사는 공공 안전 정책과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생활안전 모니터링 자원봉사가 대표적인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교통안전, 학교 주변 안전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캠페인·계도 중심의 참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행사·시민참여 분야 자원봉사는 지역 행사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공공행사 현장 안내, 질서 유지, 운영 보조 역할을 수행함.
- 특정 시기·장소에 참여 인력이 집중되는 단기 참여 구조를 가짐.

○ 재난 대응 보조 분야 자원봉사는 행정 요청에 따른 동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가짐.
- 피해 복구 보조, 물자 정리, 현장 지원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전체적으로 광주 자원봉사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 단위 중심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정해진 일정·장소·역할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짐.
- 단기 또는 중기 활동 비중이 높으며, 일부 정례 사업을 제외하면 연속 사업은 제한적임.
- 참여자에게 활동 목적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구조임.

구분	핵심 내용
사업 구성 원칙	공익성이 명확하고 행정·공공기관 협업이 가능한 영역 중심
환경·기후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 환경정화, 자원순환 캠페인, 플로깅 등 생활 실천형 활동
돌봄·나눔	광주다움 돌봄 프로젝트, 취약계층 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연계 봉사
안전·생활	생활안전 모니터링, 교통안전, 학교 주변 안전 활동, 캠페인·계도 중심
행사·시민참여	지역 축제·문화행사 운영 지원, 공공행사 안내·질서 유지
재난 대응	재난 발생 시 행정 요청에 따른 현장 지원, 복구 보조, 물자 정리
운영 특성	프로그램 단위 중심, 정해진 일정·장소·역할, 단기·중기 활동 비중 높음

[표 3-3] 광주 자원봉사의 사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 참여자 구성 및 참여 방식 현황

○ 광주 자원봉사는 개인·단체·학교·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결합된 참여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개인 반복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참여층이 형성되어 있음.
- 단체 기반 참여, 학교 연계 봉사, 기업·기관 사회공헌 연계 봉사가 병행되고 있음.
- 자원봉사센터가 참여 주체 간 연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참여 경로는 등록 기반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개인 등록 참여가 기본 경로로 활용됨.
- 학교·기업·단체 연계를 통한 단체 참여가 함께 운영됨.
- 센터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참여 방식이 병행됨.

○ 참여 방식은 오프라인 현장 참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임.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현장에 참여하는 방식이 기본 전제임.
- 활동 장소, 역할, 참여 시간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됨.

○ 현재 참여 생태계는 일정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비교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시민에게 참여가 용이한 구조임.
- 상시 근무 직장인, 이주민, 돌봄 부담 계층 등은 참여 지속성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참여 방식의 특성이 특정 생활 조건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음.

구분	핵심 내용
참여 주체	개인 반복 참여자, 단체, 학교, 기업·기관 등 복합 구성
참여 구조	자원봉사센터가 참여 주체 간 연계를 조정하는 구조
참여 경로	1365 포털 개인 등록, 학교·기업·단체 연계, 센터 기획 프로그램
참여 방식	오프라인 현장 참여 중심, 사전 신청·승인 절차
시간 구조	정해진 날짜·시간 참여가 기본 전제
구조적 특성	일정 조정 가능 시민에게 유리한 참여 구조
참여 제약 가능성	직장인, 이주민, 돌봄 부담 계층은 지속 참여에 제약 가능

[표 3-4] 광주 자원봉사의 참여자 구성 및 참여 방식 현황

▌ 재난·특수 상황 대응 운영 현황

○ 광주 자원봉사는 재난 발생 시 행정 요청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을 통해 자원봉사 인력이 모집·배치됨.
- 현장 지원, 복구 보조, 물자 정리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

- 재난 상황에 맞춰 단기 집중형 활동으로 운영됨.

○ 평상시 자원봉사 운영과 재난 대응 자원봉사 운영은 구분된 체계로 나타남.

- 평상시에는 센터 기획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짐.
- 재난 시에는 행정 주도 하에 별도의 동원 체계가 가동됨.
- 목적, 운영 방식, 참여 구조가 상황에 따라 분리되어 있음.

○ 이러한 운영 구조는 일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평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과 관리 가능성을 유지함.
-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한편, 평시 활동과 위기 대응 간의 연속성은 구조적으로 제한된 형태임.

- 재난 대응이 일상 자원봉사 활동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별도 체계로 운영되는 성격을 가짐.
  - 상황별 분리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구분	핵심 내용
대응 방식	재난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요청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 동원
주요 역할	현장 지원, 복구 보조, 물자 정리 등 보조적 기능
운영 형태	재난 상황별 단기 집중형 활동
평시 운영	센터 기획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 운영 체계
재난 운영	행정 주도 별도 동원 체계 가동
구조적 특징	평시 활동과 재난 대응이 분리 운영되는 구조
기능적 효과	일상 운영 안정성 유지 및 재난 시 신속 대응 가능

[표 3-5] 광주 자원봉사의 재난·특수 상황 대응 운영 현황

▌ 성과 관리 및 기록 방식 현황

○ 광주 자원봉사의 성과 관리는 정량적 투입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봉사시간, 참여 인원, 활동 횟수 등이 핵심 관리 지표로 활용됨.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실적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됨.

○ 해당 지표는 행정 보고 및 성과 관리에 활용도가 높음.

- 연간 사업 실적 보고에 용이함.
- 대외 홍보 및 시민 대상 성과 설명에 명확성을 제공함.
- 행정 체계와의 정합성이 높은 관리 방식임.

○ 반면, 질적 성과 요소는 공식 지표로는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
- 지역 내 관계 형성 및 공동체 강화 효과
- 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 기여 등은 정량 지표로 직접 포착되기 어려운 영역임.

○ 성과 관리 체계는 활동의 '규모와 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활동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서술적 기록은 보조적 수준임.
- 공식 성과 관리 체계는 투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핵심 내용
성과 관리 기준	정량적 투입 지표 중심
주요 지표	봉사시간, 참여 인원, 활동 횟수
관리 도구	1365 자원봉사포털 기반 기록·관리
활용 측면	행정 보고, 연간 실적 관리, 대외 홍보에 용이
질적 성과	사회적 변화, 관계 형성, 정책 기여 등은 제한적 관리
관리 구조	활동의 '규모와 양' 중심 성과 관리 체계
기록 방식	내용·과정에 대한 서술적 기록은 보조적 수준

[표 3-6] 광주 자원봉사의 성과 관리 및 기록 방식 현황

제4장 국제 자원봉사의 기준으로 본 광주에 대한 진단

1. 진단을 위한 프레임

○ 본 장의 진단 프레임은 앞서 글로벌 자원봉사 재정의 기준을 광주의 현재 자원봉사 운영 방식에 대입하여, 현황–구조–전환 필요 지점을 식별하기 위한 구조임.

- 본 진단의 목적은 “잘하고 있다/못하고 있다”의 평가가 아니라, 현재 광주 자원봉사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한 지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있음.
- 이에 따라 본 장은 개별 사업 성과를 나열하기보다, 5가지 기준으로 광주 자원봉사 체계의 작동 원리를 정책적으로 해석 가능한 언어로 재구성함.

▌ 매핑 표의 기본 구조와 작성 원칙

○ 매핑 표는 ‘국제 기준(기대되는 방향)’과 ‘광주 현황(현재 작동 방식)’을 대비하여, 전환이 필요한 구조적 지점을 도출하는 구조로 구성함.

- 국제 기준: 국제 담론이 요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의 기능적 요건, 즉 중장기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향성을 명시함.
- 광주 현황: 현재 광주의 제도, 프로그램, 참여 방식, 데이터 관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 결과 중심으로 기술함.
- 전환 필요 지점: 현황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설계 방식·운영 구조·자원 배분 체계의 한계로 해석하여 정리함.

○ 여기서 ‘전환 필요 지점’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임.

- 단순히 “부족하다”가 아니라, 어떤 기능이 어떤 단계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예를 들어, “거버넌스가 약함”이 아니라, 의제 설정 단계에 시민 참여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자원봉사가 실행 단계에 집중되는 구조와 같이 작동 방식 중심으로 기술함.

▌국제 자원봉사 흐름을 반영한 기준의 개요

○ 본 보고서는 국제적인 자원봉사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음의 5가지 고정된 진단 틀로 설정함.

- 5가지는 서로 분리된 평가 항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상호 연동됨.
  - 예를 들어, 측정 체계가 약하면 정책 환류가 제한되고, 포용성이 낮으면 회복력 네트워크 역시 취약해지는 구조를 가짐.

○ 포용성(Inclusion)

- 포용성은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참여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단함.
  - 참여 접근성(시간·공간·정보·역할)이 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함.

〈그림 4-1〉 국제 자원봉사 흐름을 반영한 기준

- 참여자 구성의 다양성과 함께, 참여 경로가 특정 집단에 반복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함.
- 즉, 포용성은 “누가 참여했는가”보다 “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를 묻는 기준임.

❍ 거버넌스(Governance)

- 거버넌스는 위원회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정보 접근–의제 설정–자원 배분–성과 검증 과정에 시민 참여가 실제로 결합되는지를 기준으로 진단함.
  - 자원봉사가 실행 단계에만 참여하는지, 아니면 정책 전 주기(문제 정의-설계-실행-환류)에 연결되는지 확인함.
  - 자원봉사 플랫폼이 단순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지, 공동 설계와 공동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지 기능을 구분해 봄.

❍ 회복력(Resilience)

- 회복력은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 여부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준비된 지역 대응 체계의 존재 여부로 진단함.
  - 평상시 운영 체계가 위기 상황에서 즉시 전환될 수 있는지(전환성), 위기 이후 장기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지속성)를 함께 점검함.
  - 이를 통해 선의에 의존한 대응과, 준비된 대응을 구분함.

❍ 측정(Measurement/Valuation)

- 측정은 봉사시간 집계의 정확성이 아니라, 정책·예산·성과관리로 연결 가능한 설명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진단함.
  - 투입 중심 지표(시간·인원)에 머무르는지, 참여 지속성, 사회적 변화, 정책 반영 여부 등 성과 중심 지표로 확장되고 있는지 확인함.
  -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 측정 기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함.

❍ 공식/비공식(Official/Informal)

- 공식/비공식 축은 등록 자원봉사 확대 여부가 아니라, 도시 차원의 기여 구조를 얼마나 폭넓게 인식·연결하고 있는지로 진단함.
  - 생활 속 돌봄, 상호부조, 관계 기반 기여가 어떤 방식으로 포착되고 있는지 점검함.
  - 제도권 자원봉사 체계가 이러한 비공식 활동과 단절되어 있는지, 또는 느슨하더라도 연결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함.

진단 축	핵심 진단 관점	주요 내용
포용성 (Inclusion)	격차를 줄이는 참여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가	• 집단별 참여 접근성(시간·공간·정보·역할) 차이 • 참여자 구성의 다양성 • 특정 집단의 반복적 배제 여부
거버넌스 (Governance)	시민 참여가 정책 전 주기에 결합되는가	• 의제 설정·설계·실행·환류 단계 참여 여부 • 자원봉사의 역할(실행자 vs 공동 설계자) • 플랫폼의 기능(운영기관 vs 의사결정 구조)
회복력 (Resilience)	상시적으로 준비된 지역 대응 체계가 있는가	• 평시→위기 전환 가능성(전환성) • 위기 이후 장기 회복 연결 여부(지속성) • 역할·안전·조정 체계 유무
측정 (Measurement / Valuation)	정책·예산으로 연결 가능한 설명력이 있는가	• 투입 지표 중심 여부(시간·인원) • 성과 지표 확장 여부(지속성·변화·환류) • 데이터의 의사결정 활용 여부
공식/비공식 (Official / Informal)	도시 기여 구조를 폭넓게 인식·연결하는가	• 비공식 기여(돌봄·상호부조) 포착 여부 • 공식·비공식 활동 간 연결 구조 존재 여부

[표 4-1] 자원봉사 진단을 위한 관점과 주요내용

UN Volunteers,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IFRC) 인도주의·자원봉사 기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2011);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통계체계; International Volunteer Year 2026(IVY 2026) 및 국제자원봉사의 날(IVD) 관련 국제 논의 종합.

2. 광주 자원봉사에 대한 진단 및 분석 결과

▌포용성(Inclusion): 참여 기반은 넓고, 확장 여지가 분명한 구조

○ 광주의 자원봉사는 환경, 돌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 영역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음.

- 이는 자원봉사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도시의 일상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참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활동 범위의 다양성은 포용적 자원봉사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

○ 현재 참여 구조는 일정·장소·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어, 참여자 입장에서는 활동 내용과 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음.

○ 다만 이 구조는 일정한 시간 확보가 가능한 시민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하는 반면, 청년 직장인, 이주민, 돌봄 부담 계층 등에게는 참여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음.

- 이는 포용성이 부족하다기보다, 기존의 안정적 참여 구조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확장할 것인가의

과제로 해석됨.

▌ 거버넌스(Governance): 실행력 중심의 협치 기반이 이미 존재

○ 광주는 협의체, 위원회,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협치 구조를 통해 행정-시민-단체 간 협력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음.

- 자원봉사는 이러한 협치 구조 속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자원봉사가 현장 실행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왔다는 점은, 행정 정책이 실제 시민 활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함.

○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자원봉사의 참여가 주로 실행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 정의나 사업 설계 단계까지 역할을 확장할 여지가 존재함.

- 이는 협치 구조가 부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행력 중심 협치를 한 단계 상위로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함.

▌ 회복력(Resilience): 현장 대응 경험을 축적해 온 기반

○ 광주의 자원봉사는 환경 정화, 안전,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의 대응 경험과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음. 이러한 경험은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산임.

○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자원봉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동원되고 참여해 왔다는 점은, 지역 사회의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줌.

○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상시적인 준비 체계라기보다는, 상황 발생 시 전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기존의 현장 대응 경험을 상시 네트워크형 회복력 체계로 구조화할 여지가 존재함.

▌ 측정(Measurement): 기본 통계 기반은 안정적으로 구축됨

○ 광주는 자원봉사 참여 인원, 활동 횟수, 봉사시간 등 기본적인 활동 통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축적·관리해 오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 활동의 규모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임.

○ 이러한 데이터는 행정 보고와 시민 홍보 차원에서 일정한 설명력을 확보해 왔으며, 자원봉사가 도시 차원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 왔음.

○ 그렇지만 현재의 측정 체계는 활동의 사회적 변화나 정책적 기여까지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는 기존의 시간·인원 중심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 설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공식/비공식(Official/Informal): 제도화된 기반 위에 확장 가능성 존재

○ 광주는 등록 기반 자원봉사 체계를 통해 참여자 관리, 활동 기록,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음. 이는 공식 자원봉사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임.

○ 이러한 제도화 덕분에 일정 수준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왔으며, 공공 영역과의 연계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다만, 생활 속 돌봄이나 상호부조와 같은 비공식 기여는 제도적 틀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는 기존의 공식 체계를 기반으로 비공식 기여를 느슨하게 연결·인정하는 확장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구분	핵심 진단	주요 내용
포용성	• 환경·돌봄·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참여 일정·역할이 명확하게 설계되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	• 정형화된 시간·공간·역할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생활 조건이 다른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의 유연성 확대 필요 • 기존 참여 기반을 바탕으로 접근성·역할 다양성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
거버넌스	• 협의체·위원회 등 협치 구조가 존재하며, 자원봉사가 정책 실행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함 • 행정 정책이 현장 활동으로 연결되는 실행력이 축적됨	• 실행 중심 참여를 기반으로 문제 정의·사업 설계 단계까지 시민 참여를 확장할 필요 • 자원봉사를 공동 설계·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단계적 전환
회복력	• 환경·안전·돌봄 분야에서 현장 대응 경험과 지역 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축적됨 • 위기 상황 시 비교적 신속한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음	• 축적된 현장 경험을 상시 대응 체계로 구조화할 필요 • 평상시 활동이 재난 대응과 장기 회복으로 연속 전환되는 체계 마련 필요
측정	• 참여 인원, 활동 횟수, 봉사시간 등 기본 통계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됨 • 자원봉사 활동 규모와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확보	• 시간·인원 중심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정책 기여 설명 지표로 확장 필요 • 측정 결과가 정책 판단과 자원 배분에 활용되는 구조 마련 필요
공식/비공식	• 등록 기반 자원봉사 체계를 통해 운영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됨 • 공공 영역과의 연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공식 체계를 기반으로 생활 속 돌봄·상호부조 등 비공식 기여를 느슨하게 연결·인정할 필요 • 도시 차원의 기여 구조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인식 전환 필요

[표 4-2] 자원봉사 진단을 위한 관점과 주요내용

제5장 광주형 자원봉사 전환을 위한 관점과 원칙

1. 광주형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 및 해석 기준

○ 본 장에서 사용하는 '광주형 자원봉사'의 개념은 "지역의 회복력과 포용을 만드는 생활 인프라로서의 자원봉사"로 정의함

○ 이 정의는 비전이나 목표를 선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광주 자원봉사 전환 논의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적 기준임.

- 여기서 '생활 인프라'란 특정 행사나 단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동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함.
-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시의 대응력을 높이고, 평상시에는 포용과 관계를 확장하는 참여 기반을 의미함.

○ 본 개념 정의는 자원봉사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함.

- 첫째, 자원봉사는 '좋은 일'인 동시에 '도시 운영의 기능'으로 이해함.
  - 자원봉사가 일회적 선의에 머물 경우, 정책·제도·예산과의 연결이 제한됨.
  - 반면, 도시 운영의 기능으로 인식될 경우 제도화, 예산 편성, 성과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둘째, 자원봉사는 '참여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시 회복력을 구성하는 장치'로 봄.
  - 재난·기후·돌봄 문제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누적되는 도시 리스크임.
  - 자원봉사는 이러한 리스크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이며,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회복까지 연결 가능한 기반임.
- 셋째, 자원봉사는 '취약계층을 돕는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포용 구조를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함.
  - 포용은 단순한 지원의 양이 아니라, 관계·접근성·참여 경로가 변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함.
  - 광주형 자원봉사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 참여 기반으로 작동해야 함.

2. 자원봉사 전환의 원칙 6가지

▌원칙 1. 참여는 동원이 아니라 선택

○ 자원봉사 참여는 '행정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선택 가능한 참

〈그림 5-1〉 광주 자원봉사 전환의 6원칙

여 경로로 설계되어야 함.

○ '동원'은 일정과 역할이 위에서 내려오고, 참여자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구조임.

○ '선택'은 참여자가 참여의 방식, 시간, 역할, 깊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참여 경험이 누적되며 재참여로 이어지는 구조임.

○ 이 원칙이 요구하는 운영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참여 설계의 기본 단위를 '행사'가 아니라 '경로'로 전환함.
- 1회성 참여 → 반복 가능 참여

- 단순 참여 → 역할 성장(초보-숙련-리더)
- 현장 참여 → 온라인·분산 참여(가능 범위 확대)

• 참여 정보는 공지·모집을 넘어 '선택 가능한 메뉴'로 제공되어야 함.
- 참여자의 생활 조건(직장, 돌봄, 이동, 언어)에 맞는 선택지가 존재해야 함.
- 선택지가 없으면 참여는 사실상 동원 구조로 남게 됨.

▌원칙 2. 취약계층은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주체

○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만 설정하면, 자원봉사는 서비스 제공에 머물고 포용 구조를 만들기 어려움.

• 광주형 전환은 취약계층을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관계망 속에서 역할을 갖는 시민으로 재정의함.

○ '관계의 주체'는 다음을 의미함.

• 당사자의 경험과 필요가 사업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가 존재함.
- 필요를 "대신 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를 "직접 말하고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핵심임.

• 참여 역할이 '수혜자/봉사자'로 이분화되지 않음.
- 당사자가 참여자의 형태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함(동료지원, 안내, 자문, 공동기획 등).
-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장치가 됨.

○ 적용 기준(정책 언어로의 번역)은 다음과 같음.

• '지원 실적'만이 아니라 '관계 변화'를 성과로 포함함.
- 연결된 관계 수, 재참여, 상호부조 형성 등 포용성과 연결되는 성과 언어로 전환 필요

▌원칙 3. 자원봉사는 도시 위기(재난·기후·돌봄)와 직결

○ 자원봉사는 '좋은 행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도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

• 도시 리스크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기후위기(폭염·폭우·침수·산불), 재난(사고·감염병), 돌봄 공백(고령화·고립)처럼 상시적으로 누적되는 문제임.

○ 이 원칙이 요구하는 핵심은 '연속성'임.

• 재난 시 단기 동원이 아니라, 평시–위기–회복이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함.
- 평시: 교육·역할 정의·연락체계 구축
- 위기: 신속 배치·조정·안전 관리
- 회복: 돌봄·생활 재건·심리적 지원 연계

○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광주 자원봉사 정책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하는가"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함.
- 리스크 유형별(재난/기후/돌봄) 대응 역할 세분화
- 참여자 보호·안전·책임 체계를 포함한 운영 기준 마련

▌원칙 4. 공식·비공식 기여의 동시 인정

○ 자원봉사를 등록 기반 공식 활동으로만 한정하면, 지역의 실제 기여 구조를 설명할 수 없음.

- 생활 속 돌봄, 이웃 상호부조, 커뮤니티 기반 활동은 평상시에도 작동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핵심적으로 작동하지만, 제도 밖에 있어 정책적 인정과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움.

○ 동시 인정의 핵심은 '제도화의 강제'가 아니라 '연결의 설계'임.

- 비공식 활동을 모두 등록시키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음.
- 대신, 인정(가시화), 지원(정보·교육·연계), 연결(공식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타당함.

○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식 활동의 실적과 함께, 비공식 기여를 포착하는 최소 장치를 도입함.
  - 커뮤니티 활동 기록 방식
  - 생활 돌봄 참여의 유형화
  - 관계 기반 기여의 사례 축적 및 인정 체계

▌원칙 5. 측정 가능한 최소지표부터 도입

○ 측정은 자원봉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예산·성과관리로 연결하기 위한 최소 조건임.

- 다만 처음부터 완전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려 하면 현장 부담이 커지고, 수집 불가능한 지표가 양산될 수 있음.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최소지표"부터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임.

○ 최소지표의 방향은 '시간 합계'의 보완임.

- 기존의 시간·인원 지표는 유지하되, 다음의 최소 성과지표를 병행함.
  - 참여 지속성(재참여율, 반복 참여자 비중)
  - 관계 성과(연결된 대상/조직/네트워크 수)
  - 환류 성과(개선된 서비스/정책 반영 사례)
  - 회복력 성과(대응 속도, 상시 대응망 유지)

○ 적용 기준으로 지표는 보고서용이 아니라 의사결정용으로 설계되어야 함.

  - 예산 배분, 사업 재설계, 역할 조정에 실제로 쓰이는 지표만 남김.
  - "측정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확장"하는 단계 전략을 채택함.

▌원칙 6. 민관협력은 행사 협조가 아니라 공동 설계

○ 민관협력을 '행사 때 도와주는 관계'로 이해하면 자원봉사는 동원형 구조를 반복하게 됨.

- 광주형 전환에서 민관협력은 공동 문제 정의, 공동 설계, 공동 실행, 공동 평가(환류)로 구성되는 구조여야 함.

○ 공동 설계란 다음을 의미함.

- 행정은 ‘승인자’가 아니라 설계 과정의 한 주체로 참여함.
- 시민사회·단체·기업은 ‘협조자’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파트너가 됨.
- 자원봉사자는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로 설계에 기여하는 참여자임.

○ 적용 기준으로 민관협력의 성과는 참여 기관 수가 아니라, 설계의 공동성으로 평가되어야 함.

- 의제 설정에 공동 참여했는가, 자원 배분과 역할 분담이 합의되었는가,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으로 환류되는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됨.

제6장 전략적 전환 구조: 국제 기준에서 광주, 그리고 일상으로

1. 전략적 전환 구조의 성격과 접근 방식

○ 본 장은 자원봉사를 여러 개의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봉사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앞서 검토한 국제 자원봉사 기준과 광주 자원봉사 정책이 실제로 작동해 온 방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자원봉사의 변화 방향이 지역 정책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적용·변형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함.

○ 본 장에서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 국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도, 행정 체계, 시민사회 환경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 담론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조정하는 중간 단계의 설계 구조를 설정함.
- 이 구조는 최종적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결되도록 설계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원봉사 전환 과정을 다섯 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함.

- 국제 자원봉사 기준이 강조하는 핵심 방향
- 해당 방향을 광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논리와 근거
- 시민의 일상 참여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2. 기후·재난 회복력 기반 자원봉사 전환

▌ 국제 기준과 이론적 배경

○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는 자원봉사를 일시적 비상 대응 수단이 아니라, 도시가 평상시부터 축적해야 할 회복력 인프라로 재정의하도록 요구함.

○ 국제 인도주의 기준, 특히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는 재난 대응을 사전 준비–즉각 대응–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속 과정으로 보고, 지역 기반 자원봉사망을 그 핵심 단위로 설정함.

▌ 광주 적용의 정책적 논리

○ 광주는 이미 돌봄, 환경, 안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 네트워크를 장기간 축적해 왔으며, 이는 회복력 자원봉사로 전환 가능한 현실적 기반임.

- 동 단위 자원봉사 조직, 생활권 중심 봉사단, 자원봉사센터의 교육·관리 경험이 이미 존재함.
- 광주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의 목적과 연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에 해당함.

○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평상시 자원봉사 활동과 재난 대응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평상시에는 환경정화, 돌봄 지원, 지역행사 지원 등으로 운영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의 모집 공고, 임시 동원, 단기 투입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반복됨.
- 이로 인해 재난 대응 시마다 "사람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현장에 몰리지만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분리는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됨.

- 평상시 활동이 재난 대응 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재난 대응 경험 역시 이후의 일상 활동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자원봉사는 '잘하고 있지만 쌓이지 않는 활동'으로 남게 됨.

○ 따라서 광주에서의 전환 핵심은 새로운 재난 대응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음.

- 핵심은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재난·기후 리스크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목적과 역할을 재정렬하는 것임.
- 즉, 같은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관계망을 유지한 채 "평상시에는 생활·돌봄·환경 활동으로, 위기 시에는 재난 대응으로, 이후에는 회복 지원으로" 역할이 연속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적 목표임.

○ 이 전환은 행정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 시 불확실성과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짐.

- 역할이 사전에 정의되고, 관계망이 유지되며, 기본 교육과 소통 구조가 갖춰질수록 위기 상황에서의 추가 지시·통제·현장 개입 비용이 감소함.
- 이는 자원봉사를 '위험 요소'가 아니라 도시 회복력의 안정 장치로 전환하는 정책적 선택임.

▌ 일상 실천으로의 연결

○ 회복력 자원봉사는 특정한 재난 발생 시점에만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준비·축적되고 위기 시 자동 전환되는 구조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활동, 위기 대응, 사후 회복이 하나의 참여 흐름으로 설계되어야 함.

○ 평상시에는 '훈련'이 아니라 역할 인식과 관계 유지가 핵심임.

- 모든 자원봉사자가 전문 재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대신 "재난이 발생하면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가 중요함.

- 예를 들어, 환경 봉사자는 위험 요소 점검·제보 역할로, 돌봄 봉사자는 취약가구 안부 확인·연락 역할로, 기록·홍보 경험자는 상황 기록·정보 전달 역할로 각자의 일상 활동이 재난 시 역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의미를 재정의함.

○ 이를 위해 동 단위로 최소한의 '회복력 역할에 대한 집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조직표가 아니라, 연락·정보 전달, 취약가구 확인, 현장 지원 보조, 물자 전달·정리, 안전·기록 등 4~5개의 단순한 역할 범주만 공유해도 충분함.
- 참여자는 "위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새로운 판단보다 사전 합의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함.

○ 위기 발생 시에는 '많이 모이는 것'보다 안전하게 배치되고 조정되는 것이 핵심임.

- 회복력 자원봉사는 현장 투입을 최소화하고, 현장 밖 지원(연락, 정리, 기록, 전달)과 현장 인접 지원(동행, 안내, 보조)으로 역할을 분산함. 이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재난 대응 체계 전체의 안정성을 높임.

○ 사후 회복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짐.

- 재난 직후가 지나면 공적 대응은 급격히 줄어들지만, 주거 정리, 일상 복귀 지원, 돌봄 공백 메우기, 심리적 불안 완화와 같은 문제는 오히려 이 시기에 집중됨.
- 이때 평상시 관계를 유지해 온 자원봉사자는 행정이나 외부 인력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축적 효과를 가짐.

- 시민의 일상적 참여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축적됨.
- 재난 대응 경험이 일상 활동의 의미를 강화함.
- 도시는 매번 새로 동원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회복력 참여 기반을 확보하게 됨.

○ 결국 회복력 자원봉사 전환이란, "재난 때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자원봉사가 재난 대응과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임.

- 광주에서는 이 전환이 새로운 제도보다, 기존 활동의 재해석과 연결 설계를 통해 실현 가능함.

3. 포용 전환 구조로서의 자원봉사

▌ 국제 기준과 이론적 배경

○ 국제 자원봉사 담론, 특히 유엔자원봉사단(UN Volunteers)의 보고서는 포용을 취약계층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참여 구조의 재설계 문제로 다룸.

○ 이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리 접근, 관계 형성, 참여 역량을 확장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됨.

▌ 광주 적용의 정책적 논리

○ 광주는 돌봄, 환경, 안전, 문화, 지역행사 등 다양한 공익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해 왔으며, 참여 기반 자체는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음.

-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조직, 센터 기반의 교육·관리 체계, 장기간 참여한 활동가층이 존재함.
- 이는 포용 전환을 위한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 조건임.

○ 그러나 현재의 참여 구조는 일정·공간·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정해진 날짜와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역할을 전제로 참여를 모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이 구조는 참여 경험이 축적된 일부 시민에게는 안정적이지만, 돌봄 책임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이동이 어렵거나, 관계망이 약한 집단에게는 참여 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참여 의지가 없음'이 아니라 '참여 조건이 맞지 않음'임.

- 많은 시민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맞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 가기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함.
- 이는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참여 방식이 단일 경로로만 설계된 구조적 문제에 해당함.

○ 따라서 포용 전환의 핵심은 참여 대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 방식의 선택 가능성을 확장하는 구조적 조정에 있음.

-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어떤 조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정책 질문으로 전환해야 함.
- 이는 포용을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유연한 참여 구조를 제공하는 문제로 재정의하는 것임.

○ 광주에서의 포용 전환은 새로운 사업을 대거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간·공간·역할 측면에서 재조정하고, 참여 경로를 다층화하여 시민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

- 동일한 공공의 목표를 유지하되, 접근 방식만 다르게 설계하는 전환임.

▌ 일상 실천으로의 연결

○ 포용적 자원봉사는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만 위치시키는 구조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움.

-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고정될 위험이 있음.
- 포용 전환은 이 구도를 '함께 참여하는 관계 구조'로 바꾸는 데서 출발함.

○ 이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 구조를 최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참여 시간과 강도를 기준으로 한 다층 참여 구조

- 15~30분 단위의 초단기 참여: 안부 메시지 전달, 온라인 정보 정리, 근거리 환경 점검 등
- 1~2시간 생활권 참여: 근거리 돌봄 동행, 장보기 보조, 공공시설 접근성 확인 등
- 역할 기반 정기 참여: 월 1~2회 관계 유지, 모임 운영, 안내·기록 역할 수행하고, 같은 포용 의제라도 참여 강도를 다르게 설계해야 다양한 시민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참여 가능함.

• 둘째, '지원–수혜' 구조를 '상호 참여' 구조로 전환
- 예를 들어, 독거노인 지원 활동을 '안부 네트워크'로 재설계하여, 고령자도 가능한 역할(이웃 정보 제공, 모임 참여, 안부 전달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함.
- 장애인 지원 활동을 '접근성 점검단'으로 전환하여, 장애 당사자가 점검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비장애인은 기록·정리 역할을 맡도록 설계함.
- 포용은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능한 역할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 셋째, 참여 장벽을 줄이기 위한 운영 장치 도입
- 정보 장벽: 장문의 공고문 대신, 한 문장 설명과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안내함.
- 관계 장벽: 처음 참여자를 위한 '1회 동행' 또는 소규모 참여 그룹을 운영함.
- 시간 장벽: 주말·야간·평일 낮 등 분산된 시간표를 제공함.
- 이동 장벽: 동 단위 집결, 근거리 배치 원칙을 적용함.

○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자원봉사는 일상 속 관계망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참여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반복 참여를 통해 고립이 완화되며, 지역 내 접근성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
• 이는 포용을 '성과 지표'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로 확인하는 방식임.

○ 결국 포용 전환 구조로서의 자원봉사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자원봉사 구조가 다양한 삶의 조건을 전제로 다시 설계되는 과정임.

• 광주에서는 이 전환이 새로운 정책 선언보다, 기존 참여 구조를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실천을 통해 충분히 구현 가능함.

4. 기술·전문 기반 자원봉사 전환

▌ 국제 기준과 이론적 배경

○ 국제적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은 단순 노동 제공에서 전문성·기술·경험을 활용한 문제 해결형 참여로 확장되고 있음.

○ 이는 공공 문제가 단일 영역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되면서, 행정과 시장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을 시민의 전문 역량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함.

▌ 광주 적용의 정책적 논리

○ 광주는 대학, 연구기관, 병원, 문화·예술계, 법률·회계·기술·디자인·IT 분야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집적된 도시임.

- 광역시급 도시로서 인적 자원의 밀도는 충분하지만, 이 전문성이 자원봉사 영역과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아직 제한적임.

○ 현재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특정 행사에서의 일회성 자문이나 강연, 개인적 인연을 통한 비공식적 도움, 단체 요청에 따른 단기 컨설팅 등 이 방식은 즉각적 도움은 되지만,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 반복 가능성이 낮으며,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 문제의 핵심은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성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임.

- 전문가는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지 불명확할수록 참여를 부담으로 인식함.
- 반대로 문제 정의가 명확하고, 산출물이 작고, 역할이 분명할수록 참여 가능성은 높아짐.

○ 따라서 광주에서의 기술·전문 기반 자원봉사 전환은 전문가 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정의–전문 매칭–산출물 생산–지식 축적이 반복되는 표준 구조를 만드는 것에 핵심이 있음.

- 이는 자원봉사를 '호의에 기대는 방식'에서 '정확한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적 선택임.

○ 이 전환은 행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 오히려 공공 문제 해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행정이 모든 분석과 설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시민 전문성은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활용되며, 축적된 결과물은 이후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에 재사용 가능함.

▌ 일상 실천으로의 연결

○ 기술·전문 기반 자원봉사의 핵심은 시민이 자신의 직업적 역량과 일상적 전문성을 사회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이는 '시간이 많은 사람만 참여하는 자원봉사'라는 인식을 깨고, 바쁜 직장인, 프리랜서, 연구자, 청년 전문 인력도 자신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을 도와달라는지'를 명확히 하는 문제 정의 구조임.

- 기술·전문 봉사는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으로는 작동하지 않음.
- 최소한 다음 요소를 갖춘 간단한 1페이지 분량의 문제 의뢰서가 필요함.
  -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현상)
  - 왜 해결이 필요한지(영향·위험)
  -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기존 시도)

- 어떤 전문 도움이 필요한지(분석, 설계, 제작, 검토 등)

• 문제 의뢰서가 있어야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투입할지 판단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전문 봉사의 산출물을 작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임.

• 전문 인력은 장기 프로젝트나 불확실한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참여 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1~2시간: 체크리스트 1개, 홍보 문안 초안, 데이터 정리
- 1일~1주: 간단 분석 메모, 프로세스 개선안, 설문 문항 설계
- 1개월 이내: 시범사업 구조 설계, 평가 지표 초안

• 작은 산출물 단위는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반복 참여를 가능하게 함.

❍ 세 번째는 결과물을 개인의 무급 노동으로 소진하지 않고, 지역의 공공 자산으로 축적하는 구조임.

• 모든 산출물은 템플릿·매뉴얼·사례로 정리되어 다음 문제 해결에 재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듦.

• 이는 기술·전문 자원봉사를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지역의 학습 능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임.

❍ 일상 실천 차원에서는 기술·전문 봉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봉사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 파트너로 인식됨.

• 디자이너: 공공 캠페인 시각물 개선, 안내문 가독성 개선

• 개발자·데이터 분석가: 간단한 현황 대시보드, 참여 데이터 구조화

• 법률·회계 전문가: 소규모 단체 운영 가이드, 계약·회계 체크리스트

• 연구자·교사: 설문 설계, 프로그램 평가 프레임 제공

❍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술·전문 기반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짐.

• 시민은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경험을 축적함.

• 자원봉사 영역은 단순 노동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확장됨.

• 도시는 행정·시민·전문성이 결합된 지식 기반 문제 해결 구조를 갖추게 됨.

❍ 결국 기술·전문 기반 자원봉사 전환이란, 전문가를 더 많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부담 없이, 반복 가능하게, 공공의 문제에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임.

• 광주에서는 이 전환이 새로운 조직보다, 문제 정의와 매칭 구조를 정교화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함.

5. 측정·인정 체계의 전환

▌ 국제 기준과 이론적 배경

○ 국제적으로 자원봉사 측정은 참여를 통제하거나 서열화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 아니라, 정책·예산·성과 관리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 확보 장치로 이해됨.

○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접근은 자원봉사 노동을 통계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선의나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정책 판단이 가능한 공공 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 초점을 둠.

▌ 광주 적용의 정책적 논리

○ 광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참여 인원, 누적 봉사시간, 프로그램 건수 등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통계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음.

- 이는 자원봉사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관리 측면에서는 중요한 출발점임.
-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활동 규모와 운영 실적은 설명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가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시간·인원 중심 지표의 한계는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연결의 문제임.

- 예를 들어, 봉사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역의 돌봄 공백이 줄었는지,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시민 간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부수적 요소로 취급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광주에서의 측정·인정 전환 전략은 '완전한 평가 체계'를 한 번에 도입하는 방식이 아님.

- 모든 활동을 정량화하고 점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
- 핵심은 정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지표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광주는 다음과 같은 전환 원칙을 채택할 수 있음.

- 첫째, 모든 활동을 측정하지 않고,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부터 측정함.
- 둘째, 복잡한 지표보다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를 우선 도입함.
- 셋째, 측정 결과는 성과 경쟁이나 통제가 아니라, 정책 학습과 개선의 자료로 활용함.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최소 지표 세트는 정책 판단에 직접 활용 가능하며, 이 지표들은 '정확한 수치'보다 변화의 방향과 경향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둠.

- 지속성: 재참여율, 정기참여자 비중, 참여 유지 기간
- 관계성: 팀·모임 유지 여부, 참여자–수혜자 관계 지속 여부
- 문제 해결 신호: 반복 민원 감소, 위험 요소 개선 사례, 생활 불편 완화 사례
- 거버넌스 연계: 정책 제안 반영 사례, 협업 부서·기관 수, 환류 회의 운영 여부

▌ 일상 실천으로의 연결

○ 측정과 인정은 상장이나 포상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단기 동기 부여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음.

- 일회성 포상은 참여를 '성과 경쟁'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음.
- 특히 일상 참여를 확대하려는 전략과는 부합하지 않음.

○ 지속 가능한 인정 체계는 학습·경력·지역 내 순환 구조와 연결될 때 효과를 가짐.

-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축적했는가"를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정 방식 전환이 가능함.

- 봉사시간 인증 → 역할 인증(조정, 기록, 돌봄, 안전, 교육 등)
- 상장 중심 포상 → 활동 포트폴리오(참여 이력, 산출물, 학습 내용 정리)
- 단발성 보상 → 지속 참여 지원(교육 기회, 안전 장비, 교통·활동비 일부 지원)

○ 이러한 인정 체계는 참여자 개인에게는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도시에는 정책 학습 자료를 축적함.

-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감각을 갖게 됨.
- 행정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학습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측정·인정 체계의 전환이란, 자원봉사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도시 정책 언어로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를 갖추자는 선택임.

- 광주에서는 이 전환이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통계와 운영 정보를 정책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음.

6. 일상 실천 구조로서의 자원봉사

▌ 전략적 의미

○ 앞서 살펴본 전환 구조들(회복력, 포용, 전문성, 측정·인정)은 제도와 설계 차원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

- 자원봉사가 실제로 도시의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 경험으로 반복·축적되는 구조까지 내려와야 함.
- 이는 일회성 대규모 참여나 행사 중심 동원이 아니라, 작고 부담 없는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전제로 함.

○ 일상 실천 구조는 자원봉사의 양을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참여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임.

- 참여 한 번의 임팩트보다,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내 일상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중요함.
- 이러한 구조가 형성될 때, 자원봉사는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따라서 일상 실천 구조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시민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야’ 하는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가.
- 참여를 위해 교육·등록·대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아니면 바로 참여 가능한가.
- 한 번 참여하면 끝나는 구조인가, 아니면 다음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광주 적용의 방향

○ 광주에서 일상 실천 구조를 설계할 때의 핵심 방향은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임.

- 이는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 조건 자체를 재설계하는 문제에 가까움.

○ 이를 위해 제안되는 방식이 ‘15분 봉사’, 마이크로 자원봉사, 동 단위 실천 구조임.

- 짧은 시간, 명확한 역할,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는
- “봉사를 위해 하루를 비워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짐.
- 특히 돌봄, 환경 관리, 안전 점검, 정보 전달 등은 짧고 반복적인 참여와 잘 결합되는 영역임.

○ 동 단위 실천 구조는 일상 실천을 제도와 연결하는 핵심 고리임.

- 생활권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익숙한 공간,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들이 존재함.
- 이 단위에서의 자원봉사는 문제 인식이 빠르고, 참여 부담이 낮으며, 관계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짐.

○ 또한 광주에서는 공식 자원봉사와 비공식 활동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함.

- 생활 속에서는 이미 다양한 비공식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웃 돌봄, 자발적 청소, 안전 확인, 정보 공유 등).
- 이를 모두 즉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기보다, 필요할 때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만 열어두는 방식이 적절함.

○ 이러한 느슨한 연결 구조는 제도적 안정성(교육, 안전,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생활 기반 참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가능하게 함.

▌일상 실천의 구체적 연결 방식

○ 일상 실천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참여 경험이 이어지는가”임.

- 한 번의 참여가 다음 참여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상 구조는 형성되지 않음.
- 따라서 참여 이후의 흐름 설계가 중요함.

❍ 예를 들어, 일상 실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작동할 수 있음.

- 즉시 참여 가능: 사전 교육 없이 가능한 간단한 역할부터 참여
- 역할 인식: 내가 무엇에 기여했는지 명확히 인식
- 관계 형성: 반복 참여를 통해 익숙한 사람·공간 형성
- 선택적 확장: 원할 경우 교육·전문 역할·조정 역할로 이동 가능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참여자가 확장 단계로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점임.

- 누군가는 평생 '15분 봉사'만 해도 충분함.
- 또 다른 누군가는 전문·조정 역할로 이동할 수 있음.
- 일상 실천 구조는 이러한 다층적 참여 경로를 허용하는 구조여야 함.

❍ 결과적으로 일상 실천 구조로서의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지향함.

- 자원봉사가 "특별한 날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는 선택지"로 존재하는 상태.
- 참여 여부가 개인의 헌신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 광주에서 이 구조가 작동할 경우, 자원봉사는 동원과 캠페인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회복력·포용·학습을 떠받치는 일상 기반으로 기능하게 됨.

- 이는 앞선 모든 전환 구조들이 실제 효과를 갖게 만드는 마지막 연결 고리가 됨.

전환 영역	국제 트랜드· 이론적 배경	광주 적용의 정책적 논리	시민의 일상 실천으로의 연결
기후·재난 회복력 기반 전환	• 기후위기·복합재난 증가로 자원봉사는 '비상 동원'이 아닌 상시적 회복력 인프라로 재정의됨 • IFRC 기준은 재난을 사전 준비–즉각 대응–장기 회복의 연속 과정으로 인식 • 지역 기반 네트워크의 신속성·지속성 중시 • 자원봉사는 선의가 아니라 교육·역할·안전 체계를 갖춘 조직적 역량으로 관리되어야 함	• 돌봄·환경·안전 분야에서 축적된 자원봉사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보유 • 기존 구조는 평상시 활동과 재난 대응이 분리되어 위기 시 별도 동원 체계로 전환되는 한계 존재 • 새로운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기존 활동이 재난·기후 대응으로 연속 전환되는 구조 필요	• 평상시: 교육, 역할 정의, 관계망 유지 • 위기 시: 신속 배치·조정 • 사후: 돌봄 및 생활 회복 지원 → 일상 참여 경험이 도시의 위기 대응 역량으로 축적
포용 전환 구조	• UN Volunteers(SWVR)는 포용을 '지원 확대'가 아닌 '참여 구조 재설계'로 접근 • 자원봉사는 서비스 제공 수단이 아니라 권리 접근·관계 형성·참여 역량 확장 메커니즘으로 이해	• 다양한 공익 영역에서 넓은 참여 기반 형성 • 기존 참여 구조는 일정·공간·역할이 고정되어 생활 조건이 다른 집단에겐 진입 장벽으로 작동 • 참여 대상 확대보다 참여 방식의 선택 가능성 확장이 핵심	•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이 아닌 공동 참여의 주체로 위치 • 일상 속 관계망 재구성 • 사회적 고립과 접근성 격차 완화
기술·전문 기반 전환	• 국제적으로 자원봉사는 단순 노동 제공에서 전문성·기술·경험 활용 영역으로 확장 • 공공 문제의 복합화에 따라 전문 시민 참여의 필요성 증대	• 전문가·연구자·실무자가 집적된 도시이나 전문성이 자원봉사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제한적 • 단발성 자문을 넘어 문제 정의–전문 매칭–지식 축적이 반복되는 구조 필요	• 시민의 직업적·전문적 역량을 사회 문제 해결에 연결 • 시간 여유 중심 봉사를 넘어 다양한 시민의 참여 방식 확보
측정·인정 체계 전환	• 국제 기준에서 측정은 통제가 아니라 정책·예산·성과관리와 연결하기 위한 설명 가능성 확보 장치 • ILO는 자원봉사 노동 가시화를 통해 정책 영역 편입을 강조	• 기본적인 활동 통계 관리 체계는 구축되어 있음 • 시간·인원 중심 지표로는 사회 변화·정책 기여 설명에 한계 • 최소 필요 지표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채택	• 포상 중심이 아닌 학습·경력·지역 순환 구조와 연계 • 개인 성장 경험과 도시 정책 학습을 동시에 촉진
일상 실천 구조	• 전략적 전환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 참여 수준까지 연결 필요 • 대규모 참여보다 작고 반복 가능한 참여 구조가 중요	• '15분 봉사', 마이크로 자원봉사, 동 단위 실천 구조를 통해 참여 진입 장벽 완화 • 공식 자원봉사와 비공식 활동을 느슨하게 연결	• 일상 속 반복 참여 경험 축적 • 제도적 안정성과 생활 기반 참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형성

[표 4-2] 자원봉사 진단을 위한 관점과 주요내용

제7장 결론: 광주에 제안하는 자원봉사 전환의 기준

1. 문제 설정에 대한 광주의 관점

○ 본 보고서는 자원봉사를 '확대해야 할 참여 활동'으로 전제하지 않음.

- 자원봉사 참여 인원, 활동 시간, 행사 횟수는 운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지역의 변화,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가 설정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자원봉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자원봉사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때 정책적 의미를 갖는가"임.

○ 이러한 문제 설정은 자원봉사를 도덕적 가치나 시민 미덕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정책 실행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재위치시키려는 시도임.

- 다시 말해, 본 보고서는 자원봉사를 '해야 할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 구조인가'의 문제로 전환하여 다룸.

2. 광주에 제안하는 최소 기준의 설정

○ 본 보고서는 광주가 모든 지역의 자원봉사 모델을 대표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음.

- 지역의 규모, 위험 요인, 행정 구조, 시민사회 기반은 서로 다르며, 단일한 모범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은 현실 적용 가능성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완결된 모델'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참고·응용 가능한 최소 기준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정리함.

▌ 도시 회복력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구조

○ 첫 번째 기준은 자원봉사를 재난·기후·돌봄과 연결된 도시 회복력의 구성 요소로 재정의하는 것임.

- 이는 자원봉사를 위기 발생 시 동원되는 보조 인력으로 한정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관계망과 역량을 축적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히 전환되며, 위기 이후에는 회복 과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접근임.

○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회복력 기반 자원봉사는 다음의 연속 구조를 전제로 함.

- 사전 준비: 교육, 역할 정의, 안전·윤리 체계 구축
- 즉각 대응: 상황 인지, 배치, 현장 조정
- 장기 회복: 돌봄, 생활 기반 회복, 관계 유지 지원

○ 이 기준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분명함.

- 지역이 위기에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기 시점에 사람을 급히 모으는 체계가 아니라, · 평상시의 시민 참여가 위기 대응 역량으로 축적되는 방식임.

○ 본 보고서는 자원봉사가 이러한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함.

▌ 측정 가능하고 환류되는 운영 체계

○ 또 다른 기준은 자원봉사 운영이 측정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임. 이는 자원봉사를 통제하거나 서열화하기 위한 측정이 아님.

- 자원봉사가 도시 정책의 중요한 자원이라면, 그 기여가 최소한 설명 가능해야 하며, 설명 가능성이 확보될 때만 정책·예산·사업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시간과 인원 중심의 기존 지표는 관리 측면에서는 유효하나, 자원봉사가 회복력, 포용, 전문성, 일상 참여로 확장될수록 변화의 질과 정책적 기여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완전한 측정 체계'가 아니라, 정책 판단에 필요한 최소 지표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안함.

- 당장 모든 것을 측정하려 하지 않고, 정책 선택과 예산 조정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지표부터 설정하며, 그 결과가 다시 운영 방식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접근은 자원봉사를 '실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이 학습하고 조정하는 운영 시스템의 일부로 다루는 전환을 의미함.

- 측정과 인정은 포상 중심을 넘어서, 학습, 경력, 지역 내 순환 구조와 연결될 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3. 정책 제안으로서의 전환 기준

○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광주형 자원봉사 전환은 "어떤 지역이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님. 자원봉사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선택도 아님.

○ 본 보고서가 다루는 전환은 자원봉사를 통해 도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임.

○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국제 기준이 제시하는 방향을 단순히 이식하지 않고, 광주의 제도, 행정 구조, 시민사회 기반을 매개로 적용 가능한 정책적 기준을 정리하고자 함.

○ 그 기준은 다음 네 가지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자원봉사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 회복력 인프라로 작동해야 함.
- 자원봉사는 ‘선의’가 아니라 역할·안전·교육·운영 체계를 갖춘 구조로 관리되어야 함.
- 자원봉사는 ‘실적’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을 통해 정책과 예산의 학습·조정 구조로 연결되어야 함.
- 자원봉사는 ‘특별한 참여’가 아니라 일상적 참여 경험의 축적으로 확장되어야 함.

○ 본 보고서는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자원봉사를 둘러싼 논의를 확장과 동원의 언어에서 벗어나, ·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로의 전환할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24). Disaster Response Emergency Fund (DREF) Annual Report 2024. Geneva: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2024). IFRC Annual Report 2024. Geneva: IFRC.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ttps://www.ilo.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Geneva: ILO.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https://www.unv.org/.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2020). Measuring Volunteering for the 2030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2022).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22: Building Equal and Inclusive Societies.

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2026).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26.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https://www.gjplatform.kr/.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https://www.v1365.or.kr/.